‘사기’ vs ‘진짜’ 초전도체 테마주 ‘광풍’…지역개미 관심 집중

서남·덕성·파워로직스 등 급등락 반복에 투자자들 ‘잠 못드는 밤’
이차전지 테마주 영향 지난달 광주·전남 거래대금 70.6% 급등

“며칠 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어요.”

광주의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박모(40)씨는 최근 초전도체 관련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널뛰기하는 바람에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초전도체 테마주로 불리는 ‘서남’을 1주당 8070원씩 총 1000주를 샀다. 총 807만원 어치다.

‘서남’은 박씨가 매입한 당일 7170원까지 떨어지는 등 11.15% 하락했다. 이후 11일까지 장중 최저 5950원까지 떨어졌다. 주당 2120원(26.3%) 손해를 기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볼까” 미처 결정을 내리지도 못한 사이 ‘서남’ 주식은 지난 14일 상한가를 기록, 16일에도 상한가를 치는 등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박씨는 “또 언제 다시 급락할 지 몰라 14일에 절반을 팔고, 오늘도 나머지 절반을 모두 팔았다”며 “총 100만원 상당 이득을 봤다.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널뛰기하고 있어 한동안 투자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초전도체 진위 공방 속에서도 일부 관련 테마주가 상한가를 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차전지에 이어 초전도체까지 테마주 ‘광풍’이 불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지역민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초전도체 테마주로 불리는 덕성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만3240원에 장을 마감했다. 덕성의 우선주인 덕성우 역시 29.94% 급등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서남(29.90%)과 서원(29.86%), LS전선아시아(29.95%), 파워로직스(29.71%), 모비스(29.90%) 등 관련주 역시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 급등세가 이어져 지난 14일 하루 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던 신성델타테크는 전장보다 30.00% 오르면서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는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 ‘LK-99’의 초전도성을 부인하는 해외 연구기관들의 발표에 급락하는 등 주가가 널뛰기하는 혼조세를 보였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메릴랜드대학 응집물질이론센터(CMTC)는 전날 오후 SNS를 통해 “LK-99는 상온과 저온에서 초전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밝힌 이후 일부 초전도체 테마주는 연일 급락에 이어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LK-99’가 ‘초전도체가 맞다’는 의견이 다시 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핀테크 스타트업 보나사피엔스의 김인기 대표가 SNS를 통해 “LK-99는 상온 초전도체도 맞고, 새로운 강자성체도 맞다”라며 “원저자들은 원래 생각보다 더 대단한 걸 발견했다. 축하드린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인하대학교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딴 후,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박사, 연구원·연구부 교수,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 열풍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지역민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7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 자료를 보면 올 7월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합산)은 13조4242억원에 달해 전월 대비 70.6%(5조5574억원) 증가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은 코스닥에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가장 많이 사고 팔았으며, 코스피에서도 ‘POSCO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금양’,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이차전지 테마주가 나란히 가장 많이 거래한 1~4위 종목에 올랐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이차전지 테마주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달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 테마주 역시 지역민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증권가에서는 8월 역시 초전도체 테마주를 중심으로 주식 거래대금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편 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는 LK-99의 상온 초전도성에 부정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조만간 LK-99의 샘플을 제작해 교차 측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LG유플러스와 제휴 적금 출시

연 최고 금리 13%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6일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연 최고금리 13%의 ‘광주은행 제휴적금 with 유플러스닷컴’<사진>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 고객(1인 1계좌)이라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매월 납입금액이 20만원으로 고정된 정액적립식 1년제 상품이다.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은행 모바일웹뱅킹에서 가입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3.0%이며, 우대금리와 특별 우대금리까지 더해 최고 연 1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0.5%포인트) 조건은 광주은행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에서 이·적금으로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통한 입금횟수가 5회 이상인 만기해지 계좌다.

특별 우대금리(9.5%포인트) 조건은 LG유플러스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5G다이렉트플러스 69/59 ▲5G다이렉트 65 등 3종 상품으로 요금제를 가입하거나 전환하면 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가입하능하며 총 5000계좌를 선착순 판매한다. 또 가입 고객 대상으로 LG그램 노트북(1명), 에어팟 3세대(4명), 굽네치킨 쿠폰(50명)을 제공하는 경품 추첨 행사도 선보일 예정이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통신과 금융이 결합한 당행 최초의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금융 모델을 제시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효성첨단소재, 협력사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환경영향평가 산정 컨설팅 지원

효성첨단소재는 협력사들의 전과정 환경영향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산정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탄소중립 이행 강화에 따라, 유럽 등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국내 희망 협력사 4개사 7개 제품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시작한 LCA 산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제표준인 ISO 14044에 기반한 LCA는 원료 추출 및 가공에서부터 제조, 수송, 사용,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서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해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협력사는 이를 토대로 배출량 산정 및 이에 대한 감축 활동을 펼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 역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또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고객들의 기후변화 관련 대응 요청에도 원활한 대처가 가능하다.

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지원사업 이후 협력사들과 함께 원료에서부터 제조, 수송, 사용, 폐기까지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참여를 선언했으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영상 1.5도 수준으로 설정해 내년 말까지 SBTi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계획이다.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는 “효성첨단소재의 배출량 감축 활동에 머물지않고, 협력사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 협력사 ESG진단 및 컨설팅,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산단 인생 한 컷, 추억을 보여 주세요

산단공, 9월 4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3 산업단지의 날’을 맞아 ‘산업단지의 추억’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개인 또는 기업에서 소장하고 있는 ▲과거 산업단지와 기업의 모습 ▲근로자 근무 모습 ▲생산 현장 ▲근로자 문화체육행사 등 다양한 추억 속 사진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당 최대 3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진 제출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2023 산업단지의 날’ 기념 사진전 등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늘 9월 4일까지다.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icox.or.kr)에 접속해 고객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우편(hero21@kicox.or.kr)으로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성장지원팀 전화(070-8895-7016~7)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5.64(-45.23)
↓	코스닥	878.29(-23.39)
↓	금리(국고채 3년)	3.712(-0.035)
↑	환율(USD)	1336.90(+6.00)

중국발 ‘리먼 사태’ 공포…부동산 디폴트 우려 고조

신탁회사 중룽, 수 십 건 연체 “생각보다 심각…단기 유동성 고갈 상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알리안츠 등 비구이위안 달러 채권 보유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몰린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 부동산식탁회사인 중룽(中融)국제신탁의 자금 상황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을 인용, 중룽국제신탁 이사회 서기인 왕창이 이번 주초 회의에서 투자자들에게 지난 8일 만기가 된 여러 상품에 대해 현금 지급을 하지 못했으며 지난 달 하순 이후 1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지급도 이미 연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적어도 30개의 상품에 대한 지급이 연체됐으며 중룽 측은 일부 단기 상품에 대한 상환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중룽국제신탁은 부유층과 기업 고객의 저축을 모아 부동산, 주식, 채권 상품에 투자하는 회사로 2조9000억달러(약 3880조원) 규모의 중국 신탁산업에서 큰 회사 중 하나로 여겨진다.

데이터 제공업체 유즈 트러스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만기가 되는 270개의 고수익 상품(395억위안·약 7조2000억원 규모)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급 연기 사태는 이 회사의 2대 주주인 자산관리회사 중즈(中植)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룽국제신탁의 연체 증가는 1380억달러(약 184조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중즈그룹의 위기가 깊다는 신호”라며 “악전고투 중인 중국 그림자 은행의 어려움이 알려진 것보다 깊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앞서 중룽국제신탁이 만기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한 회사는 중국 상하이증시 상장사인 진보(金博)홀딩스·난두(南都)물업, 셴헝(咸亨)인터내셔널 등 3개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림자 금융시스템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을 가리킨다.

은행 규제 당국은 중즈그룹의 위험도를 조사하는 등 중국 당국도 이미 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왕 서기는 “회사는 단기 유동성이 갑자기 고갈됐기 때문에 당장 지급을 충당할 계획이 없다”며 투자자로부터 ‘질문의 쓰나미’에 직면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왕 서기는 중룽국제신탁이 모든 상품에 대한 지급을 중단했다는 온라인 루머는 부인했다.

그는 “유동성이 예기치 않게 고갈됐는데 기초 자산 대부분은 장기적이고 유동화할 수 없기에 단기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룽은 디폴트로 인한 여파를 제한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현재 중룽신탁 외에도 중신(中信), 중성(中誠), 우광(五鑛)신탁, 광다(光大)신탁 등 주요 신탁회사들도 지난해 말부터 원금·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가운데 중국 금융권에서는 상당수 신탁회사가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냉방부하 절감 우수 사업체 방문 한국전력 직원들이 16일 여름철 냉방부하 절감 우수고객인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축냉설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축냉설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 냉동기를 가동해 물을 얼려 축열조에 저장한 후, 전력사용이 많아지는 낮 시간대 냉방에 사용하는 설비다. <한전 제공>

기아, 청소년 진로체험 멘토링 참가자 모집

22일까지 모빌리티·방송·게임 등 온라인 특강

기아는 전국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진로체험 특강인 ‘퓨쳐 인사이트 웨비나’로 진행된다. 모빌리티, IT, 게임, 방송,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의 전문 직업군 멘토(9인)와 기아 임직원 멘토(5명)의 온라인 특강으로 이뤄진 온라인 세미나다. 오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이날부터 22일 오후 12시까지다. 전국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 스캔 후 관심 있는 분야의 멘토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웨비나 모집인원은 410명으로 접수 후 문자로 개별 통지되며, 접수 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임직원들이 쌓아온 경험이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아는 전문가에게 상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진로쌤’에서 전국 진로 진학상담교사연합회의 교사들과 진로와 관련된 1대1 상담도 지속 후원하고 있다. 또 청소년 진로 체험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 콘서트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